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2017. 10. 12.(목) 조간	배포 2017. 10. 10.(화)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진태국 국장(3145-7460), 문형진 팀장(3145-7466)	

제 목 : 금융꿀팁 200선-⑥⑨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1)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예순 아홉 번째 금융꿀팁으로,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1)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 ⑥⑨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1)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 (<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제 목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1)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1) A씨는 자동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며 속도를 즐기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음. A씨는 당연히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보험처리 접수를 함. 하지만 본인도 교통법규를 위반(과속운전)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함 ■ (사례2) B씨는 평소 출·퇴근 시 운전을 하며 좋아하는 드라마를 DMB를 통해 시청하곤 했음. 어느 날 퇴근길에 드라마를 보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와 부딪침. 지난해에도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낸 적이 있었던 B씨는 DMB 시청으로 인한 과실책임 증가와 함께 향후 높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예상되어 크게 후회함 ■ (사례3) 7년째 같은 자동차를 몰고 있는 C씨는 차가 오래되어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차를 몰고 여행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함. 처음 사고를 겪은 C씨는 2차 사고가 걱정되어 신속히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으나, 블랙박스나 주변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사고 직후 어떤 증거나 기록들을 남겨놔야 할지 몰라 애가 탐 ■ (사례4) 얼마 전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겪은 D씨는 과실비율 산정 근거에 대한 보험회사 담당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례에서 과실비율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판례나 법규 등에 관한 보다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음. 하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아도 이러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몹시 답답함

☞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금과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실비율”을 알아두세요!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1)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 ① 음주 · 무면허 · 과로 · 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p 가중
- ②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p 가중
- ③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 10%p 가중
- ④ 과실비율 분쟁예방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⑤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 궁금할 땐 「파인」 통해 확인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금)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단, 상계 후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 상계 후 부상보험금은 치료관계비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음

(보험료)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하여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과거 사고횟수와 크기(손해액 등)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 4쪽에서 계속)

특히,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즉, 가해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고 1건에 한하여 사고위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거와 달리 **보험료 할증폭이 대폭 줄어듭니다.**

예) 가해자(A)와 피해자(B)의 과실비율이 80 : 20일 때 보험료 할증 비교

	과실비율	자동차보험료 변동			변경효과
		사고 前	사고 後		
			개선 전	개선 후	
A(가해자)	80%	63만원	85만원 (35% 할증)	85만원 (35% 할증)	변화 없음
B(피해자)	20%	41만원	55만원 (34% 할증)	45만원 (10% 할증)	24%p 감소

주) 1. A·B 모두 직전 3년 무사고, 사고 전 할인할증 등급(A 15, B 20) 등 가정
2. 할인·할증등급 적용률 등 실제 적용요율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

①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p 가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 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하여 가·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자가 이러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p**만큼 추가로 **가중**됩니다.
과실비율이 증가하여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됩니다.

과실비율이 20%p 가중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실비율이 20%p 가중될 수 있는 사유(예시)

- ▶ 졸음 및 과로운전
-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 * 평균 소주 2잔(5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측정되는 수치
- ▶ 무면허운전
- ▶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 ▶ 마약 등의 약물운전
- ▶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②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보호구역
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
비율이 **15%p** 가중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표시 사례



③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 10%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금지**,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할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비율이 **10%p 가중**됩니다. 이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이 **10%p 가중**됩니다.

과실비율이 10%p 가중될 수 있는 사유(예시)

- ▶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 ▶ 핸들,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 ▶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전조등, 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 ▶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
- ▶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 위반
- ▶ 차량 유리의 틴팅(선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 행위 등

④ 과실비율 분쟁예방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증거 확보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시 현장 증거자료 확보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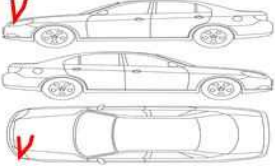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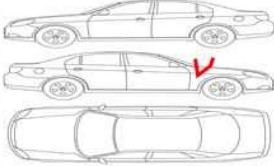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타 사고정보 기록
<p>※ 파손부위뿐 아니라 사고정황이 나타날 수 있게 차량에서 5~10걸음 떨어져 촬영한 자료도 필요</p> <p>※ [촬영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 차량번호판 및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사진 ▶ 차량과 차선이 함께 나오도록 전후 좌우 네 방향에서 촬영 ▶ 차량 진행흔적(스키드마크, 기름흙 자국 등) ▶ 파손부위를 확대 촬영 	<p>※ 상대방 차량번호 확인 후 당사자간 명함이나 이름·연락처 교환</p> <p>※ 사고일시는 오전·오후를 구분한 시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p> <p>※ 사고장소는 주변 큰 건물이나 차로를 중심으로 기재, 구체적인 차량위치나 접촉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유용</p> <p>※ 날씨, 각 차량의 탑승인원수도 기록하면 유용</p>

한편 사고를 겪으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럴 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동 협의서는 사고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으로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차량에 비치**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상담보험정보' 코너 → '자동차보험 관련 안내'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안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작성 사례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협의서작성예시														
사고일시	20xx년 x월 x일, 00시 00분 (오전, 오후)				사고장소	00동 xx구 발달알 사거리				사고당시 날씨	맑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흐림 <input type="checkbox"/> 비 <input type="checkbox"/> 눈 <input type="checkbox"/> 안개 <input type="checkbox"/>			
A 차량	차량번호	00가0000		보험사	AA 화재		차량번호	xx가0000		보험사	BB 화재			
	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010-1111-1111		성명	김철수		전화번호	010-2222-2222			
	주민번호	xx0000-xx000000				주민번호	xx0000-xx000000				주민번호	xx0000-1xx00000		
	주소	서울시 강남구 우암동 80번지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번지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번지		
합승인원 (운전자 포함)		2명 (남자: 1명, 여자: 1명)				합승인원 (운전자 포함)		1명 (남자: 1명, 여자: 0명)				합승인원 (운전자 포함)	1명 (남자: 1명, 여자: 0명)	
사고 관계자 정보 및 피해 상태	[피손부위] : 해당부위에 V 표시 						[피손부위] : 해당부위에 V 표시 						[구체적 피해정도 및 특이사항 기재] 커튼 에어백 작동 여부 확인 차량은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없습니다.	
	[구체적 피해정도 및 특이사항 기재] 좌측 앞범퍼 일부 및 헤드램프가 파손						[구체적 피해정도 및 특이사항 기재] 좌측 앞범퍼 일부 및 헤드램프가 파손							
사고 내용	사고원인	지체대조종차		정면충돌 <input type="checkbox"/> 추돌충돌 <input type="checkbox"/> 정면충돌 <input type="checkbox"/> 추돌충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후진사고 <input type="checkbox"/>		[사고약도] 								
	사고참인	지체대조종차		정면충돌 <input type="checkbox"/> 추돌충돌 <input type="checkbox"/> 정면충돌 <input type="checkbox"/> 추돌충돌 <input type="checkbox"/> 보도충돌 <input type="checkbox"/>										
	[구체적 사고개요 및 특이사항 기재] 00동 xx구 발달알 사거리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홍길동의 자동차(A차량)와 1차선에서 우회전하던 김철수의 자동차(B차량)가 충돌하여 A차량의 좌측 앞범퍼와 B차량의 우측 앞범퍼가 파손													
보험청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신속한 사고처리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상호 서명날인합니다. A차량 : 홍길동 (서명), B차량 : 김철수 (서명), 보험자 : 이보환 (서명)												

⑤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 궁금할 땐 「파인」 통해 확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다양한 사고 유형**에서의 과실비율을 **동영상,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보험 다모아」를 클릭한 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네이버·다음 등에서 “파인”(http://fine.fss.or.kr) 검색 → 파인 홈페이지에서 ‘보험 다모아’ 선택 →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선택

<「파인」을 통해 과실비율 동영상 검색하는 방법>

① 「파인」 접속하여 '보험 다모아'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선택



② 원하는 사고유형 선택



③ 세부 사고조건 설정 및 검색

